coupang newsroom

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 시리즈 ‘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’ ‘빈지 리딩’ 대본에 이창희 감독도, ‘오징어 게임’ 제작자도 반했다!

2026. 7. 24.

쿠팡플레이 시리즈 <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>(연출: 이창희 | 극본: 정은경, 박수린 | 출연: 김혜수, 조여정, 김지훈, 김재철 | 제작: 김지연, 황동혁)가 대본을 읽는 순간부터 멈출 수 없는 몰입감으로 제작진을 사로잡았다. 이창희 감독부터 <오징어 게임> 시리즈의 김지연 제작자, 황동혁 감독까지 작품을 제작한 이유를 직접 밝히며 완성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.

쿠팡플레이 시리즈 <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>(이하 <지금 불륜>)는 행복한 가정을 팔아온 인기 인플루언서 부부와 진흙탕 이혼 소송 중인 이웃집 의사 부부가 불륜조차 하찮아지는 감당 불가한 비밀로 얽히면서 폭주하는 연쇄 추돌 블랙 코미디.

<살인자ㅇ난감>, <타인은 지옥이다>, 영화 <사라진 밤> 등 자신만의 연출 세계를 구축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겨온 이창희 감독이 블랙 코미디에 도전한다. 인물의 심리를 밀도 있게 쌓아 올리는 섬세한 연출과 스타일리시하고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호평받아온 그는 이번 작품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인물들의 관계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낸다.

이창희 감독은 **"이야기 자체에 강한 매력을 느꼈고 연출적 욕심이 생겼다"**며 참여 이유를 밝혔다. 이어 **"무척 의외성이 있고 위트가 넘쳤다. 시청자들에게 '불륜이 문제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?'라는 궁금증을 끊임없이 자아내는 매력적인 작품"**이라고 소개해 기대를 더했다.

글로벌 흥행 신화를 쓴 <오징어 게임> 시리즈의 퍼스트맨 스튜디오가 제작한 작품이라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뜨거워지고 있다. 작품의 시작을 이끈 김지연 대표는 **"두 이웃들 간에 벌어지는 독특한 코미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'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"며 "기존의 특정 장르에 속하지 않는 신선한 이야기다. 모든 캐릭터가 굉장한 힘으로 이야기를 꽉 채워 몰고 나간다. 인간 내면의 복잡다단한 본성을 즐기듯이 봐주시면 좋겠다"**고 기획 의도를 전했다.

<오징어 게임>의 연출자이자 <지금 불륜>의 제작자로 참여한 황동혁 감독 역시 **"대본을 읽었을 때, '빈지 워칭'을 넘어선 '빈지 리딩'의 느낌을 받았다.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서 도저히 중간에 끊기가 어려웠고, 계속해서 예측을 뒤엎는 반전들이 등장했다. 영상으로 구현된다면 정말 최고의 시리즈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"**며 대본의 강렬한 몰입감을 극찬했다.

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신선한 작품인 만큼 연출의 주안점 역시 차별화였다. 이창희 감독은 **"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. 코미디도 스릴러도 아닌, 사람들의 얽힌 이야기를 희극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"**라며 무엇보다 주요 인물들의 밸런스를 잡는 데 가장 공을 들였음을 강조했다.

이어 **"등장인물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어도 그 안에는 유약함과 찌질함을 감추고 있다"**라며 **"불륜으로 시작 했지만, 불륜 뒤에 더 큰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인물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해소하면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"**고 덧붙여 도파민을 자극할 <지금 불륜>만의 색깔을 예고했다.

'빈지 리딩'을 부르는 대본, 이창희 감독의 참신하고 감각적인 연출, 글로벌 흥행 제작진의 함께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올여름 예측 불가한 화제작의 탄생을 예고하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<지금 불륜>은 오는 7월 31일(금) 저녁 8시,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.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